

# 조계종 사면원칙 놓고 설왕설래



97년 9월 2일 부산 롯데호텔 컨벤션홀에서 거행된 일타스님(왼쪽 첫번째)의 저서 <기도> 일어난 출판기념회. 원로·중진스님 5백여명 등 3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 계·정·혜 섭렵한 선승

### '동곡의 큰해 서산에 지다'... 일타스님 행장

1929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난 일타스님은 42년 통도사에서 고경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후 49년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조계종 1~3대 중앙종회의원과 해인사주지, 은해사주지, 해인총림 울진장과 울주 등을 역임했으며 93년에는 조계종 전계대화상에 위촉되어 계율을 진작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스님은 계정에 삼학을 두루 섭렵한 보기드문 선승이었다.

1949년 통도사 강원을 졸업한 스님은 53년 통도사 천화율원(千華律院)에서 자운율사로 부터 율장을 전수받았으며 이

**일타스님 열반송**

一天白日露真心  
萬里清風彈古磬  
生死涅槃皆是夢  
山高海闊不相侵

하늘에 밝은 해가 진심을 드러내니 만리에 맑은 바람 거문고를 타는구나. 생사와 열반이 일찌기 꿈이려니 산은 높고 바다 넓어 방해롭지 않구나.

## 네손가락 12마디 연비 친·외가 41명 출가

어 <범방경보살계>(계율과 수행) 등 계율관련 서적을 출간하고 해인총림 울주 등을 역임하면서 율사로 널리 알려지게 됐다. 일타스님은 또 46년 송광사 삼일암에서 수선안거를 시작한 이래 전국의 제방선원을 두루 거처하며 화두일념으로 참선정진과 중생교화에 매진해 온 선승으로 더욱 유명하다.

특히 지난 54년 오대산 적멸보궁에서 매일 3천백씩 7일간 기도 끝에 오른손 네손가락 12마디를 연비한 후 태백산 도솔암에 들어가 6년 동안 용맹정진한 것은 유명한 일화로 전해진다.

일타스님의 속가제자 김현준 씨(불교신학연구원장)는 "스님은 평소 '참선을 열심히 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다 보면 계율은 저절로 청정해지는 것'이라며 불자들에게 참선을 강조하셨다고 전했다.

60년대 중반부터 해인사 지족암에 주석해 온 일타스님은

평소 제자들에게 "다음 생애는 불법이 미약한 서양, 특히 미국에서 태어나 고등교육을 마치고 한국의 해인사나 송광사에서 수도한 후 미국을 비롯한 서양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싶다"며 미국에서 평생 할 것임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또한 "미국에서 20세 가량의 비구승이 찾아오면 나인줄 알았다"고 했다고 한다. 일타스님은 이와 관련, '死生出沒 月轉 空中 東谷日陀 西岸月明' (삶과 죽음은 달의 공전과 같네. 동쪽 계곡에 해 저물면 서쪽 해안에 달 밝으리)라는 의미 심장한 계송을 남긴 바 있다. <현대불교 186호 수행한달>

친·외가를 포함해 41명의 친척이 출가할 정도로 불연이 강한 집안에서 태어난 스님은 문하에 성진, 해인, 해국, 향적, 돈관스님 등 1백여명의 상좌와 고목 선조 태경 장적 성공스님 등 1백여명의 손상좌를 두었으며, <생활속의 기도법> <기도>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시작도 끝도 없는 길> 등 10여권의 신행안내서를 남겼다.

이윤호 기자  
(yhl@buddhopia.com)

## 정대스님 기자회견서 밝힌 '재산 관련자 제외' 해석 분분 일부대상자 집단 대응 움직임

조계종의 사면과 관련, 미묘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자칫 또다른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총무원의 한 부장스님은 11월 30일 사면 원칙에 대해 "중헌 9조 3항(사실사망 및 법인의 종단 등록)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처자가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면대상자인 한 스님을 거론하며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 "결정적인 신상의 문제가 있어 사면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 정대스님도 11월 24일 취임기자회견에서 재산관련 징계자의 사면의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아직까지 사면 원칙에 대한 총무원의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같은 발언은 종단재산과 관련된 징계자의 경우, 사면 이전에 사찰 및 법인의 종단 등록을 유도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주요 징계자의 '누활'을 경계해 몇 스님을 사면에서 제외시키려는 의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 부분이 자칫 불화의 소지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대상자를 먼저 열두에 두기보다는

## 정대스님 기자회견서 밝힌 '재산 관련자 제외' 해석 분분 일부대상자 집단 대응 움직임

종단의 화합과 기강의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법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앞서의 총무원의 한 부장스님은 "사면 방법은 중헌 개정을 통한 한시적 적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열반자의 사면은 중헌에서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중헌 128조 '징계를 받은 자로서 비행을 참회하고 특히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집행중이라도 징계를 사면, 경감 또는 복권시킬 수 있다. 다만, 열반자의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하며, 제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야 사면·복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화회의에 참여했던 한 스님은 "중헌이 울장의 상위에 설 수 없다"고 전제하고 "결석심판에 의한 징계이므로 울장에 어긋나고, 따라서 당시의 징계는 성립

## 정대스님 기자회견서 밝힌 '재산 관련자 제외' 해석 분분 일부대상자 집단 대응 움직임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펴 현격한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정화회의에 남아 있는 스님들이 사면을 실현시키기 위한 모임 구성을 논의하고 있는 움직임도 주목된다. 사면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은 매우 못마땅하게 보고 있다. 정화회의에 남아 있는 스님들은 협상의 파트너가 아니며, 더구나 사면과 관련해 집단적으로 나서지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정화회의에는 대부분 94년과 그 이전 징계자들이 남아 있다.

대다수 불자들이 지난 10월의 조계종사태가 화합으로 마무리되어야 하며, 그 측은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사면 실시 이전에 사태 당사자들의 참회가 선행되기를 불자들은 바라고 있다.



사면이 또다른 불화의 불씨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불자들의 바람이다. 사진은 지난 10월 조계종 총무원 청사 앞에서 시위하는 정화회의 소속 스님들.

한편 94년 이후 제적 및 열반의 징계를 받은 스님은 각각 20여명 안팎이다. 94년 이전 징계자까지 합치면 40여명에 이른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opia.com)

## 조계종 내년예산 미승인 신규사업등 진행 차질예상

### 12월중 임시총회 불투명

"가야 할 길은 먼데, 날은 저물고..." 중앙총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못해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들의 요즘 심정이다.

중앙총회는 계획대로라면 11월 첫 주 개회하는 정기총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기총회는 총무원장선거 후유증으로 휴회를 거듭하다 폐회해 예산안을 심의조차 못했다. 임시총회를 열어 예산안이라도 통과시켜야 하나 재정분과위원회의 예비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여서 12월중 소집도 불투명하다.

총회의장 범등스님은 "재정분과위원회의 예산 예비심사 후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임시총회 소집을 논의할 것"이라며 "가능하면 빠른 시일안에 예산안이라도 다음 임시총회를 소집하겠다"고 말했다.

정상적인 일정이라면 11월 정기총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고, 12월에는 중앙총무기관의 각 부서별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서를 수립하고, 1월중에 총무원장 신년회견을 통해 총무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특히 내년도는 종단 중장기 발전계획 2차 연도로 신규사업이 가장 많다. 그러나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는 예산회계법 24조에 따라 신규사업은 예산이 승인되지 않으면 사업에 착수할 수 없다.

내년도 신규사업은 45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1~3월중에 착수 또는 시행을 마쳐야 하는 사업도 선원 안거성만자 전산입력, 강원교과과정 표준화 연구, 불교시민단체연석회의 및 불교사회교육원 설립 등 11개 사업이나 된다. 또 불교관련 사료(일제시대 총독부 관보) 정리와 통계프로그램 개발은 유실재산의 파악과 불교현대사의 1차 자료정리, 종단행정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중요한 사업들이다.

예년 같으면 사업담당자들이 실행계획서를 세우느라 바쁜 연말을 보낼데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이 삭제되거나 예산에 변동이 생기면 계획서를 다시 세워야 하므로 일손이 잡힐 리 없다.

문화부가 불교문화보호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교문화유산 발굴조사단 구성 사업의 경우, 문화재 분야의 권위자를 단장으로 내정해놓고도 예산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장을 비롯한 위원 구성을 미뤄놓고 있다. 인건·환경운동과 관련된 사업은 불교부의 단체와 연계하는 사업으로서 차질을 빚을 경우 불교의 대외적인 신뢰의 추락까지 감수해야 한다.

지난 해에도 조계종 중앙총회는 종단사태로 2월에 가서야 예산을 승인했다. 지난 해에는 종단사태 때문이었다는 이유가 있었지만, 올해는 총무원장선거 후유증이라는 이유의에는 없다. 또 한 달이 되도록 예산을 안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성운 기자

### 국회의원이 위탁받은 한 표는 국민의 귀중한 권리요, 그들이 받는 세비는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마음이 되고 손발이 되어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분골쇄신해야 한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국회의원들께서는 국민의 그토록 귀중한 정성어린 권리와 피땀어린 세금을 제대로 행사하며 관리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정당 패거리나 짓고 서로간의 허물이나 꼬집고 온갖 추태를 부리며 국민의 혈세와 정치자금만 탐닉하고 있으니 국민의 한숨소리가 하늘에 가득 차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자금조차도 정정치지 못하

다.

IMF 이후, 오늘에 이르는 2년간 얼마나 많은 회사가 퇴출되고 노동자가 해고되었으며, 구조조정으로 수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어 아직도 2백만을 헤아리는 실업자가 있지만 국회의원의 정수는 299명에서 270명으로 감축한다는 방안은 지지부지 꼬리를 감추고 말한다.

"은혜를 아는 것은 대비(大惠)의 근본이며, 선업(善業)을 여는 첫 문이다. 이런 사람은 남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 멀리까지 명성이 들리며, 죽은 뒤에도 천상에 태어나 마침내 불도(佛道)를 성취하기에 이를 것이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란 축생(畜生)보다 못하다." <대지도론(大智度論)에 있는 말이다.

권리를 부속하여 밀어 주고 세금 내어 정치자금까지 부당하고 있는 국민들의 안타까운 실정을 잘 보고 분명히 듣고 살피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훗날 복(福)받을 훌륭한 정치인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싶다.

"국회의원들이여! 제발 국민의 은혜를 알고 은혜에 보답 할 수 있는 정치를 하십시오. 자못 축생보(畜生報)를 받을까 걱정스럽소이다."

법산(동국대 정국원장·본지는설위원)



### 국회의원 세비인상

모든 국정은 뒤로 물리면서 의원세비 인상 예산통과를 하고 있으니... 중산층이 60%대에서 30%대로 붕괴되면서 빈곤층의 증가로 국민 대다수의 고층이 피부에 와 닿는 체감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이때, 실사 정부의 발표에 따른 금년 경제성장률 8%와 물가안정 0.8%를 감안하더라도 의원세비를 14.3%로 인상하고, 의원 1인당 4급 보좌관 1명씩을 신설키로 하는 예산 126억7000만원까지 별도로 편성했다는 보도는 해도해도 너무 한다고 국민의 원성이 자자하다.

# 새 천년 새 아침 무량광 무량수 아미타불을 맞이합시다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일출을 관하던 기도도량 -낙산사 의상대



염불만일회 서른 한 분 스님의 등공부도담 -건봉사 등공탑

## 새천년 해맞이(낙산사)와 건봉사(등공대)순례 안내

- ◆ 일 시 : 1999년 12월 31일~2000년 1월 1일
  - ◆ 순례코스 : 서울 출발~속초낙산사 새벽예불~의상대 일출~건봉사 등공대
  - ◆ 출발일시 : 1999년 12월 31일(금) 저녁 7시 서울 조계사 앞
  - ◆ 동참금 : 4만원(아침, 점심식사 제공) 미리 접수바랍니다.
  - ◆ 접수처 : 전화 (02)732-1215~7 팩스 (02)732-1207
- ※ 동참하시는 모든 분께 새 천년 아미타불 호신불을 드립니다.

- 제6차 전국염불만일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 ◆ 회원 자격 : 염불수행을 원하는 분
  - ◆ 회원 대상 : 개인, 단체, 사찰
  - ◆ 가입 방법 : 전화 및 우편

## 全國念佛萬日會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